

## 스페인어 접미사와 파생어의 운율적 제약 현상\*

이 수 열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수열(2016), 「스페인어 접미사와 파생어의 운율적 제약 현상」,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2), 89-109.

**초 록** 접미사를 어간 뒤에 덧붙이는 첨가 방식은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휘 형성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운율적 제약으로 본고에서는 이런 파생어들이 형성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운율적 제약 현상을 살펴본다. 스페인어 접미사들은 강세와 관련하여 비강세 접미사, 강세 접미사, 강세 이동 접미사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강세 접미사는 어간의 강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어간의 강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로 이 접미사들의 운율 구조는 하나의 경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세를 보유할 수 있는 운율적 구조를 갖지 못한다. 강세 접미사는 두 개의 경음절, 혹은 하나의 중음절 구조로 되어있어 강세를 갖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강세를 접미사 바로 앞 음절로 이동시키는 강세 이동 접미사의 경우 이 접미사들은 운율적으로 강세를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파생어 형성과정에서 제약현상이 일어나 강세가 앞 음절로의 이동이 발생한다. 다양한 형태의 접미사들이 하나의 파생어를 생성할 경우 이들 접미사들의 결합과 관련된 제약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제약 현상은 접미사들의 운율 구조상 차이에 의해 일어난다. 어간 뒤에 강세 이동 접미사, 강세 접미사의 순서로 그리고 -mente 부사형이 마지막에 첨가되는 형태로 다양한 파생어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분석한다.

**핵심어** 스페인어 접미사, 스페인어 파생어의 운율 구조, 스페인어 강세, 스페인어 파생어의 운율 제약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8176).

## I. 서론

스페인어 어휘 형성 과정 중 하나는 어간에 접미사를 첨가하여 파생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어의 형성 과정에서 무작위로 어간과 접미사를 붙인다고 하여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가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음운론적인 제약으로 이러한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파생어가 생성된다.

이러한 제약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스페인어 접미사의 여러 운율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접미사 파생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율적 제약 현상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스페인어 접미사를 운율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파생어 형성 시 발생하는 운율적 특징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접미사들이 하나의 파생어를 형성할 때 어떠한 형태의 운율적 제약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 II. 스페인어 접미사의 강세 유형에 따른 분류

하에스(Hayes 1995, 28)에 의하면 접사들은 어간에 결합될 때 강세에 관련하여 다음의 행동을 취한다: 접사들은 강세를 가질 수 있거나, 강세가 없거나, 접사와 결합하는 어간의 강세를 이동시킬 수 있다(“[...] affixes can be inherently stressed, inherently stressless, can remove stresses from the domain to which they are attached, assign a stress to the preceding syllable, and so on”).

접사 중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존재하지만 스페인어의 경우 접두사는 강세와 관련하여 어간의 운율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volvér-devolvér, posible-imposible, gramaticalidad-agramaticalidad*) 본고에서는 오직 접미사에 관한 운율적 현상만 취급하기로 한다. 그중에서도 강세에 관련하여 다양한 운율적 제약을 보여주는 파생 접미사를 분석해볼 것이다.<sup>1)</sup>

1) 스페인어에서 접미사는 굴절 접미사와 파생 접미사로 나뉘어진다. 굴절 접미사는 강세와 관련된 운율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그 종류로는 복수형 어미(-e, -es),

스페인어에서 파생 접미사는 강세와 관련하여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어간의 강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어간의 강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접미사, 어간의 강세를 접미사로 이동시키는 접미사, 그리고 어간의 강세를 접미사 앞 음절로 이동시키는 접미사 등이다. 강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접미사를 비강세 접미사(sufijos átonos)로, 강세를 갖는 접미사를 강세 접미사(sufijos tónicos)로, 강세를 접미사 바로 앞 음절로 이동시키는 접미사를 강세 이동 접미사(sufijos preacentuados)로 칭하기로 한다.

### 1. 비 강세 접미사(sufijos átonos)

비 강세 접미사는 파생어 형성 시 어간의 강세 변화를 야기하지 못하는 형태로 어휘 형성 기능에서 극소수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접미사들이다. 일부 형용사 파생 접미사와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 파생 접미사형들만이 여기에 속한다.

(1) -io (coríntio, beócio)	-no (rayáno, pagáno)
-de (rebéldo)	-cio (nutrício)
-a (pésca, hábla)	-e (cósste, péine) <sup>2)</sup>

### 2. 강세 접미사(sufijos tónicos)

강세 접미사들은 비 파생어의 강세에 영향을 주어 어간의 강세를 단어 오른쪽에 위치한 접미사로 이동시킨다. 즉, 파생어에서 접미사 자체가 어휘의 주장

---

과거 분사형(-ado, -ido), 현재 분사형(-ando, -iendo) 어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단어의 복수형 접미사들은 어간의 강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접미사로 대부분의 스페인어에서 단수형과 복수형은 동일한 음절에 강세를 갖는다: *cása*-[cásal], *jóven*-[jóven]es. 여기에는 일부 예외 어휘들이 존재하는데 스페인어에서는 다음의 어휘들만이 복수형에서 강세의 이동이 일어난다: *régimen*-*regímenes*, *carácter*-*carácterés*, *júnior*-*juniores*, *espécimen*-*especímenes*, *interín*-*intérines*, *ómícron*-*omicrónes*.

과거분사 형과 현재분사 형은 어간의 강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접미사 자신들이 강세를 갖는 형태다: *hablár*-*habládo*-*hablándo*, *comprender*-*comprendído*-*comprendiéndo*.

2) 본고에서 인용하는 단어의 강세 표시(´, tilde)는 철자법을 따르지 않고 본고에서 분석하는 운율 구조에 따라 부여되는 강세 표시이다.

세를 갖는 구조로 축소사, 증대사 등 많은 접미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접미사들은 어휘적 유표 특징을 가지는 접미사와 무표 특징을 가지는 접미사로 구분되며,<sup>3)</sup> 각각의 경우 형태소 어미 ET(elemento terminal)의 유무로 나뉘어진다.

(2) 무표적 특징의 접미사(sufijos no marcados)

[+ ET]: -éd+a (arboléda)	-ér+o/a (ajéro/a, frutéro/a)
-íst+a (taxísta, pianísta)	-úr+a (blancúra, dulcúra)
-búnd+o/a (vagabúndo/a)	-ós+o/a (furióso/a, ceremonióso/a)
-ésc+o/a (trovadorésc/a, pintorésc/a)	
[-ET]: -able (mejoráble, amáble)	
-sión (alusión, previsión)	-ción (preocupación, canción)
-ál (rosál, arbitrál)	-dád (bondád, dignidad)
	-í (marroquí, iraní)
[+/-ET]: -dór/+a (investigadór/+a, vendedór/+a)	
	-és/+a (francés/+a, inglés/+a)

(3) 유표적 특징의 접미사(sufijos marcados)

[+ET]: -ésimo/a (centésimo/a)	-ón/-óna (barrigón, mujeróna)
-ísimo/a (altísimo/a, fortísimo/a)	-ító/a (casíta, jovencíto)
-illo (libríllo, panecílllo)	-érrimo/a (paupérrimo/a, misérrimo/a)

### 3. 강제 이동 접미사(sufijos preacentuados)

강제 이동 접미사들이 만들어내는 파생어들의 강세는 어간의 강세 위치와 상관없이 접미사 바로 앞 음절 즉,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위치한다. 이 그룹에 속하는 접미사는 대부분 형태소 어미를 갖는다.

(4) ´-ido (fétido, bóvido)	´-ul+o (crédulo, acídulo)
´-e+o/a (férreo/a)	´-imo/a (décimo/a, céntimo/a)
´-il (táctil, acuátíl)	´-ple (cuádruple, óctuple)

3) 어휘의 무표적 특징은 스페인어에서 철자법상 어휘에 강세 마크(tilde)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이며, 강세 마크가 나타나는 어휘들은 유표적 특징으로 구분된다(Lee 1994; Channesian Saboundjian 2004).

‘-ico/a (histórico/a, económico/a)	‘-fobo/a, (homófono, xenófono)
‘-dromo (aeródromo, velódromo)	‘-grafo (fonógrafo, autógrafo)
‘-fono (teléfono, audífono)	‘-logo (filólogo, psicólogo)
‘-paro/a (ovíparo/a, múltiparo/a)	‘-fero/a (petrolífero/a, aurífero/a)
‘-fico/a (específico/a, benéfico/a)	‘-filo/a (hidrófilo, zoófilo)
‘-foro/a (semáforo, acuífero/a)	‘-fugo/a (centrífugo/a, febrífugo/a)

### III. 스페인어 파생어의 운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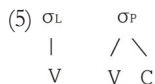
스페인어는 라틴어, 로망스어 처럼 음량 상관 언어(lengua sensible al peso silábico)로 어휘를 구성하는 음절들의 무게와 강세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다 (Harris 1983; Halle and Vergnaud 1987a; Roca 1989). 이는 강세의 부여에 음절의 운율 구조가 관여되는 특징으로 경음절(sílaba ligera)보다는 중음절(sílaba pesada)이 강세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강하여 한 어휘 내에서 가능한 한 오른쪽에 위치한 중음절들이 강세를 보유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라틴어에서는 단어의 마지막 두 번째 음절이 중음절일 경우 두 번째 음절에, 그렇지 않으면 단어 마지막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된다.<sup>4)</sup> 이러한 운율적 특징을 바탕으로 스페인어에서의 음절과 강세와의 상관관계를 다뤄보고 앞에서 분류한 파생 접미사들의 각각의 운율 구조를 분석해본다.

#### 1. 접미사의 음절 구조와 운율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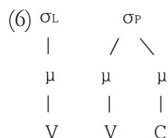
모든 음절들은 음절의 무게에 의해 중음절( $\sigma P$ )과 경음절( $\sigma L$ )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로망스어에서 강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음절과 강세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모라( $\mu$ , mora) 단위가 사용되는

4) 라틴어의 강세는 단어 끝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음절에 부여되는데 다음의 강세 규칙에 따른다:  
 a. 단어의 마지막 두 번째 음절이 중음절일 경우 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된다(*amicus*, *perfectum*).  
 b. 단어의 마지막 두 번째 음절이 경음절일 경우 강세는 마지막 세 번째 음절에 부여된다(*dominus*, *faci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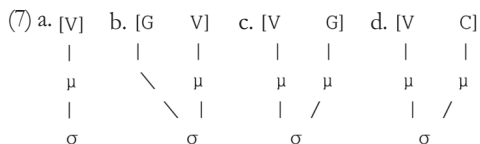
데, 히만(Hyman 1985)은 이 단위를 사용하여 음절의 무게를 경음절과 중음절로 구분한다. 경음절은 각운(rima)이 하나의 단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며 중음절은 장모음(V:) 혹은 모음과 자음(VC)으로 이루어진 음절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운의 각 요소들은 모라에 연결된다는 제안을 한다. 중음절인 [V:], [VC] 형태의 각운은 [CV-V]로, [CVC] 각운은 [CV-C]로 분석하여 두개의 모라를, 그리고 경음절인 [V] 형태의 각운은 하나의 모라를 갖는 형태로 제안한다.



스페인어에서 모음은 단 모음과 이중 모음 그리고 삼중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모음은 하향 이중 모음(VG)과 상향 이중 모음(GV)으로 분류된다. 분포 상으로 이중 모음은 모음과 자음의 결합형(VC)과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 이중 모음들 사이에는 운율 구조에 차이가 존재한다. 상향 이중 모음은 같은 음절 내에서 뒤에 자음을 동반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하향 이중 모음과 VC 결합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을 운율적 구조에 맞게 분석해보면 하향 이중 모음과 VC 결합형은 중음절과 같은 운율 특징으로 운율 구조상 모두 두 개의 모라로 구성되어있지만 상향 이중 모음은 단 모음처럼 하나의 모라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이중 모음간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



스페인어에서 음절은 최대 두 개의 모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상향 이중 모

음이 두 개의 모라로 구성된 각운이라면 또 다른 모라를 갖는 자음이 한 음절 내에서 추가될 수 없다. 하지만 *viento, siempre, fuerte* 같은 어휘처럼 상향 이중 모음에는 한 음절 내에서 자음이 추가되는 어휘들의 예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는 상향 이중 모음이 두 개의 모라가 아니라 하나의 모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향 이중 모음은 운율 구조상 두 개의 모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음절 내에서 자음이 뒤따를 수 없어서 *pei.ne* 같은 어휘는 가능하지만 *\*peis.ne* 같은 어휘들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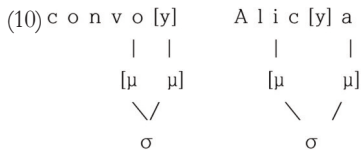


상향 이중 모음과 하향 이중 모음 사이의 차이는 강세 규칙에서도 잘 나타난다. 단어 마지막 음절의 상향 이중 모음은 강세를 갖지 못하지만(*Alicia, con.se.cnén.cia*) 마지막 음절의 하향 이중 모음은 강세를 갖는다(*maméy, con.vóy*). 이는 스페인어에서 강세를 갖는 음보는 두 개의 모라(pie bimoráico)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의 마지막에 위치해야 한다는 강세에 관한 일반화 현상에 따른 것이다(Halle and Vergnaud 1987a; Lee 1994).

이러한 상향 이중 모음과 하향 이중 모음의 차이에 대해 까레이라(Carreira 1990)는 모음 앞에 위치한 반모음은 강세 규칙의 관점에서 볼 때 음절 두음의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을 한다. 마지막 음절에서 상향 이중 모음은 두 개의 음운 요소로 되어있지만, 강세와 관련된 운율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음운 요소로 이루어진 경음절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마지막 음절이 강세를 보유하지 못한다. 이런 상향 이중 모음을 까레이라는 경 이중 모음(diptongo ligero)이라 칭하고 다음의 구조를 제시한다:



상향 이중 모음은 두 개의 음소가 하나의 위치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 모음처럼 하나의 모라로 되어 있고, 하향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스페인어에서 강세는 마지막 두 번째 모라에 위치한다는 스페인어의 강세 규칙과의 관계로도 설명된다(Lee 1994). 단어 마지막에 위치한 하향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라로 이루어진 음보를 구성하고, 이 음보의 첫 번째 요소에 강세가 할당된다. 반면, 상향 이중 모음은 음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위치한 다른 모라와 음보를 구성하고, 그 다른 요소가 강세를 갖게 된다:



몬로이 까사스(Monroy Casas 1980, 80)는 음성학적으로 하향 이중 모음은 상향 이중 모음보다 긴 음성 지속 기간을 갖고 있으며, 상향 이중 모음은 단순 모음보다 약간 긴 지속 기간을 갖는다는 사실로 이중 모음간의 차이를 입증한다. 또한, 하향 이중 모음은 VC 결합형과 비슷한 지속 기간을 갖는다는 주장을 한다. 까사스가 입증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상향 이중 모음은 단 모음처럼 하나의 모라로 되어 있고, 하향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라로 되어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일부 학자들은 스페인어에서 모음 앞에 위치한 반모음은 음절의 맨 앞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모음 핵의 일부분이지만, 모음 뒤에 위치한 반모음은 각운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을 한다(Harris 1983; Hualde 1990). 그리고 음절의 맨 앞에 위치한 반모음은 자음화 되어 음절 두음의 일부분이 된다(*ma[yo]*, *[ye]gua*).

따라서 상향 이중 모음은 하나의 모라로 이루어진 경음절로 그리고 하향 이중 모음은 두 개의 모라로 이루어진 중음절로 결론지을 수 있으며, 하향 이중 모음만이 두 개의 모라로 이루어진 음보를 형성하여 어휘의 강세를 보유할 수 있는 운율적 구조를 가진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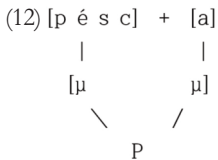
## 2. 접미사의 운율 구조와 제약 현상

### 1) 비 강세 접미사의 운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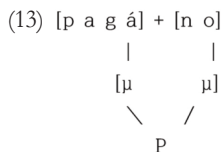
여기에 속하는 접미사들의 운율 구조는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서 분석대로 이 음절들은 운율적으로 경음절에 속한다. 즉, 하나의 모라로 이루어져 강세를 위한 음보를 독자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운율 구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세와 관련된 음보는 두 개의 모라로 구성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접미사 앞에 위치한 어간의 모음과 결합하여 운율적으로 우세한(prominencia prosódica) 음보를 형성한다.

- (11) a. -a: pésca, hábla  
      -e: cóste, péine
- b. -no: rayáno, pagáno  
      -de: rebélde
- c. -cio: nutrício  
      -io: coríntio, beóc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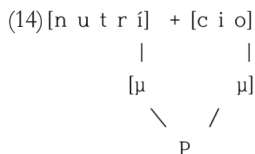
(11a)의 접미사들은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형태들로 이들 접미사는 단독으로 강세 음보를 구성할 수 없어서 앞에 위치한 어간의 모음과 음보(P, Pie)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음보들은 스페인어의 다른 음보들처럼 강약의 리듬을 가진다(Lee 1994; Harris 1983; 1991):



(11b)의 접미사들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고 있지만 경음절의 운율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하나의 모라로 구성되어 있다. 강약 음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접미사 앞에 위치한 어간의 모음과 결합되어야 한다.



(11c)에 속한 접미사들의 특징은 상향 이중 모음으로 형성된 접미사들이다. 이들 접미사들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하나의 음보로 이루어진 운율적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독자적인 율격 음보(pie métrico)를 구성할 수 없고, (11a), (11b)의 접미사들처럼 어간의 모음과 강약 음보를 구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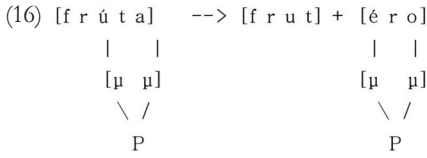


(11)의 비 강세 접미사들의 공통된 운율 구조상의 특징은 경음절로 이루어진 음절로 강약 리듬의 음보를 구성하여 강세를 갖기 위해서는 어간의 음절과 결합하여야 하며 이 음보의 왼쪽 요소인 어간의 모음이 파생어의 강세를 보유하는 운율 구조를 만들어낸다.

## 2) 강세 접미사의 운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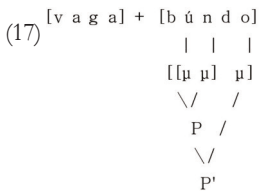
- (15) a. -éd+a: arboléda                      -ér+o/a: cajéro/a, frutéro/a,  
           -íst+a: taxísta                      -úr+a: blancúra  
           -ós+o/a: furioso/a                -áble: mejoráble, amáble
- b. -búnd+o/a: vagabúndo/a            -ésc+o/a: pintorésc
- c. -dád: bondád, dignidád            -ál: rosál, arbitrá

(15a)에 나타난 접미사들은 무표적 어근과 무표적 접미사의 파생어이며 여기에 속한 접미사들은 공통적으로 두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어휘 *frutero*는 다음의 운율 구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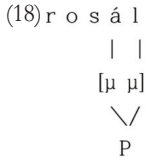
비파생어 *fruta*의 운율 구조를 살펴보면 이 어휘는 두 개의 경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음절이 하나의 음보를 형성하고 그 첫 번째 요소에 운율적 우세가 형성되어 [u]에 강세가 부여된다(*frúta*). 하지만 이 어휘에 접미사 [-ero]가 결합될 경우 이 접미사는 하나의 울격 음보를 구성할 수 있는 운율적 특징을 가진다. 접미사 [-ero]는 두 개의 경음절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울격 음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음보의 왼쪽 요소가 운율적 우위를 점해 [e]에 강세가 부여된다. (15a)의 접미사들이 결합된 모든 파생어에서는 접미사가 강세를 보유하여 어간의 강세를 접미사로 이동 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frutéro*).

(15b)에 속한 접미사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중음절과 경음절의 결합형이다. 이 중음절은 앞에서 분석한대로 두 개의 모라로 이루어져 하나의 음보를 구성한다. 이 중음절에 경음절이 결합되었는데, 스페인어의 강세 규칙에 따라 끝에서 두 번째 모라에 강세가 부여되면 강세는 중음절의 두 번째 모라에 해당되는 자음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강세는 항상 모음만이 가져야만 되는 강세 보편화 원칙(Principio de la regla acentual, Halle and Vergnaud 1987a)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앞 음절의 모음으로 강세가 이동되어 일반적 운율 구조와는 다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음보를 슈퍼 음보(P', super pie)라 하며 이 음보는 여타의 음보와 달리 세 개의 모라로 형성된다(pie trimoráico, Halle and Vergnaud 1987a). 따라서 파생어 *vagabundo*는 다음의 운율 구조를 형성한다:



(15c)에 나타난 어휘들은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진 접미사 파생어들로 이들 음절의 운율적 특징은 중음절이다. 어휘 *rosal*의 경우 이 어휘는 [rosa]에 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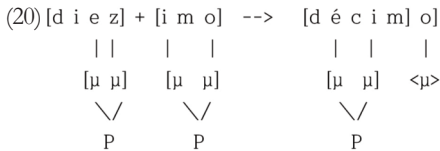
사 [-al]이 첨가된 형태로 접미사 [-al]은 운율적으로 하나의 음절이지만 중음절로 두 개의 모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하나의 음보를 형성할 수 있어 이 음보의 첫 번째 요소인 [a]에 강세가 부여된다:



### 3) 강세 이동 접미사의 운율 구조

- |                                      |                                 |
|--------------------------------------|---------------------------------|
| (19) a. ‘-imo/a: décimo/a, céntimo/a | ‘-ple: cuádruple, óctuple       |
| ‘-ico/a: histórico/a, económico      | ‘-fobo: homófobo, xenófobo      |
| ‘-dromo: aeródromo, velódromo        | ‘-grafo: fonógrafo, autógrafo   |
| ‘-fono: teléfono, audífono           | ‘-logo: filólogo, psicólogo     |
| ‘-paro/a: ovíparo/a, múltiparo/a     | ‘-fero/a: petrolífero, aurífera |
| ‘-fico/a: específico, benéfica       | ‘-filo/a: hidrófilo, zoófilo    |
| ‘-foro/a: semáforo, acuífero/a       | ‘-fugo/a: centrífuga, febrífugo |
| b. ‘-il: táctil, acuátí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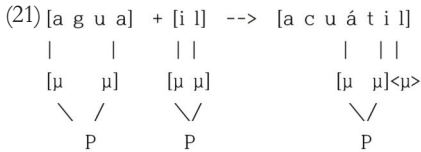
(19a)의 강세 이동 접미사들은 독자적으로 하나의 음보를 형성하여 강세를 갖지만, 어근과 결합시 새로운 운율 구조가 형성된다. 접미사 자체는 어휘적 무표 특징을 갖지만 파생어가 형성되면서 유표적 특징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비 파생어에서는 하나의 음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파생어에서는 마지막 모라가 운율 외적(extramétrico) 요소로 변하면서<sup>5)</sup> 어간의 모습들과 음보를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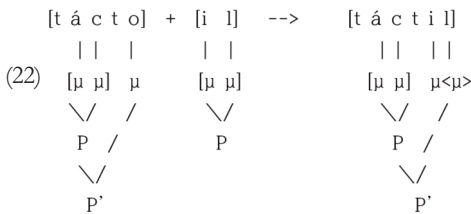
5) 유표적 어휘의 운율적 특징 중 하나는 강세를 구성하는 운율 구조에서 마지막 모라는 운율 외적 요소로 결정된다(Halle and Vergnaud 1987; Lee 1994; Roca 2005).

또한 (19a)의 파생어들은 모두 운율적으로 단어 마지막 세 번째 강세 음절 어휘(*palabras esdrújulas*)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마지막 음절과 마지막 두 번째 음절들은 모두 경음절로 이루어져 이러한 경우 라틴어처럼 단어 마지막 세 번째 강세 음절이 가능하여 스페인어의 운율 제약<sup>6)</sup>을 준수하고 있다.

(19b)의 접미사 [-i:]의 경우 (19a)의 접미사와 달리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접미사 자체도 중음절의 운율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강세가 부여될 수 있는 하나의 음보가 형성되어 있지만,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운율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19a)에서처럼 파생어에서는 어휘적 유표 특징이 나타나 마지막 모라는 운율 외적 요소가 되어 다음의 운율 구조가 형성되었다:



동일한 접미사로 파생된 어휘 *táctil*의 경우 이 어휘의 운율 구조에서는 *acuátíl*과 달리 슈퍼 음보가 형성 되어 다음의 운율 구조를 보여준다:



접미사 [-i:]이 결합된 파생어의 경우 접미사는 중음절의 운율 구조로 이 파생어들은 모두 단어 마지막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위치할 수 없는 제약 사항을 준수하여 단어 마지막 두 번째 음절 강세 어휘(*palabras graves*)가 된다.

6) 스페인어의 운율 제약 중 두드러진 특징은 단어 마지막 음절이 중음절일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부여될 수 없고, 마지막 두 번째 음절이 중음절일 경우에도 세 번째 음절의 강세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sosiego*, *caramba*는 가능하지만, *\*sósiego*, *\*cáramba*는 운율적으로 불가능한 어휘가 된다(Harris 1983, 12).

#### IV. 스페인어 파생어의 운율적 제약 현상

파생 접미사와 강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분류된 접미사들이 동시에 결합하여 하나의 파생어를 형성할 경우 파생 접미사간에는 어떠한 제약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어떤 형태인지를 밝혀본다.

스페인어에서 접미사 파생어와 복합어 등의 운율 구조는 강세 순환 규칙에 의해서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다(Harris 1983; Wong-Opasi 1987).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3) [generoso] + [dád] - generosidád  
 [generár] + [ción] - generación  
 [generár] + [ívo] - generatívo  
 [generál] + [izár] - generalizár

스페인어에서 파생 접미사로 형성된 어휘들의 운율 구조들은 비파생어에서 존재했던 운율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갖는데 이 현상은 강세의 순환 적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강세 적용 규칙은 파생어, 복합어 등의 어휘에서는 이전의 작은 단위 - 비파생어-에서 보다 큰 영역인 파생어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이전 영역에서 적용된 운율 규칙은 다음 영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리스(Harris 1969, 125-126)는 스페인어에서 강세 적용이 순환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중 모음화 현상으로 설명한다:

- (24) buéno - buenísimo  
 púeblo - pueblecítio  
 diéstro - adiestráo

(24)에서 나타났듯이 순환적으로 적용된 강세에 의해 파생어들의 단 모음들도 이중 모음화 현상을 겪는다. 해리스는 마지막 주기 이전에 적용된 강세는 이후 주기에서는 강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효과인 이중 모음화 현상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24)의 예로 설명한다.

(25) [nación] - [nacion]ál - [nacional]izár - [nacionaliza]ción

(25)의 예는 강세가 순환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 예이다. (25)에서 나타나 있듯이 강세는 파생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파생어의 오른쪽 가장자리, 즉 접미사로 이동한다. 이는 강세는 순환적으로 내부 요소에서 외부 요소로 -작은 영역에서 보다 큰 영역으로- 파생되면서 적용된다. 그리고 이전 영역에서 부여된 강세는 이후 영역에서는 유지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운율 구조도 포함되어 제2강세(a, o)들도 이전 주기에 나타난 현상과는 다른 형태로 부여된다. 즉, 독자적인 강세 부여 규칙에 따라 새로운 운율 구조가 형성된다.

(26) nación - nacional - nacionalizár - nacionalización

파생 접미사 [-al], [-zar], [-ción]들은 앞에서의 분석대로 강세 접미사들로 이들 접미사는 보다 작은 영역의 강세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강세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어휘 *nacionalización*은 [어간]+[강세 접미사]+[강세 접미사]+[강세 접미사]의 순서로 강세가 순환 적용되어 파생된 어휘로 이들 간에는 운율적 제약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27) a. [ángel] - [angél]jico - [angelic]ál  
           [cólera] - [colér]jico - [coleriqu]ísimo  
       b. [ciénto] - [cent]ésimo - [centesim]ál  
       c. [clásica] - [clasic]ón - [clasicon]cító

(27a)에 나타난 파생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강세 이동 접미사가 결합되어 파생어가 형성되었다(angélico, colérico). 이 파생어들은 앞에서 분석했듯이 강세 접미사가 아니다, 즉, 자신들이 강세를 보유하지는 못하는 운율 구조를 갖는데 이 파생어에 강세 접미사가 결합되어 *angelicál, coleriquísimo* 같은 파생어가 형성되었다. 이 파생어는 [어간]+[강세 이동 접미사]+[강세 접미사]의 순서로 결합되어 파생어가 형성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결합된 강세 접미사가 파생어의 강세를 보유하고 있다. 즉, 강세 이동 접미사는 강세를 보유할 수 있

는 능력이 없고 따라서 강세 접미사와 동시에 하나의 파생어를 형성할 경우 강세는 강세 접미사가 가져야 되며, 따라서 강세가 부여되는 파생어의 오른쪽 가장자리는 강세 접미사만이 위치할 수 있다. [강세 이동 접미사+강세 접미사]의 어순만이 가능한 파생어를 생성 할 수 있다. 그 역순의 과정이 일어날 경우 오류 현상이 발생한다: [angel+ic(o)+ál], \*[angel+ál+ico].

- (28) a. [clarísima]ménte  
           [urgentísima]ménte  
           [furiosísima]ménte  
       b. [melancólica]ménte  
           [colérica]mente

(28)의 어휘들은 강세 이동 접미사에 -mente 부사형이(28a), 강세 접미사에 -mente 부사형이(28b) 각각 결합된 파생어들이다. 이들 파생어에 나타난 공통된 운율적 특징은 접미사 [-mente]가 각각의 파생 과정 마지막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사 접미사 [-mente]의 운율 구조는 하나의 음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로 이 접미사도 강세 접미사에 해당되어 파생어의 강세를 보유할 수 있고 다른 강세 접미사 이후에 결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 (29) fúria - [furi]óso - [furios]ísimo - [furiosísima]ménte

어휘 *furiosísimamente*는 (29)에서처럼 세 개의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로 이 접미사들은 강세 접미사들([-óso], [-ísimo])에 부사형 접미사 [-mente]가 순서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7)</sup> 이렇듯 여러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생성될 경우에 나타나는 운율적 제약 특징은 다음의 결합 순서로 파생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7) [강세 접미사]와 [강세 접미사]가 동시에 결합되어 파생어 생성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 간의 결합 순서는 운율적 제약 요소에 따르지 않고 형태론적 제약 현상이 나타나 파생어가 형성된다: [명사+형용사 접미사+ísimo 접미사].



- (30) [어간] + [강세 접미사] + [-mente 접미사]  
       [어간] + [강세 이동 접미사] + [-mente 접미사]  
       [어간] + [강세 이동 접미사] + [강세 접미사]

(30)에 나타난 파생어 생성 과정의 어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 (31) [어간] < [강세 이동 접미사] < [강세 접미사] < [-mente 접미사]

(31)에서는 접미사들 중 강세를 가질 수 있는 접미사들이 파생어의 오른쪽에 위치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스페인어의 파생 접미사들은 파생어 생성 시 각각의 운율적 구조의 특성에 맞게 결합이 되어야 하며 파생어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할수록 운율적으로 보다 우세한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구조상의 운율적 제약 특징을 준수하면서 파생어들의 어휘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V. 결론

스페인어에서 접미사를 어간 뒤에 붙이는 방식은 대표적인 어휘 형성 수단의 하나이다. 이렇게 형성된 다양한 파생어들은 여러 제약 현상을 준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중 운율 구조와 관련된 제약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스페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생 접미사들을 운율 구조와의 관계로 분류하였다. 이들 접미사들은 강세와 관련하여 운율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이거나(비강세 접미사), 강세를 가질 수 있도 있고(강세 접미사), 그리고 강세를 가지지 못하지만 강세를 접미사 앞 음절로 이동 시키는 형태로(강세 이동접미사)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 접미사들의 운율 구조를 각각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비강세 접미사는 운율적으로 하나의 경음절로 이루어져서 강세 음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강세는 비파생어 형태인 어간에 그대로 유지되는 운율 특징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강세 접미사들은 강세 음보를 구성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라로 이루어져 접미사 자체에 강세가 부여되는 운율 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세 이동 접미사의 운율 구조를 파악해 보았다. 이 접미사들의 공통된 운율 구조 특징은 접미사 자체로도 강세를 가질 수 있는 음보를 구성하지만 파생어 과정에서 마지막 모라의 운율 외적 특징이 나타나 운율 구조에서 이 모라는 배제된다. 따라서 이 접미사의 앞 음절과 강세 음보를 형성하여야 하고 이 앞음절의 모음이 강세를 갖게 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형성된 파생어들의 운율 구조를 분석해보면 비 파생어들에 적용된 여러 운율 제약 현상들이 파생어에서도 그대로 준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접미사들이 하나의 파생어를 형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운율적 제약 현상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접미사들은 무작위로 파생어를 생성하지 않고 하나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이는 파생어 생성 시에 나타나는 결합 순서였다. 즉, 어간 뒤에 강세 이동 접미사 그리고 강세 접미사의 순서로 파생어가 형성되었고, 여기에 가능한 *-mente* 부사형이 추가로 합쳐진 어휘를 생성해내는 운율 구조를 보여주었다.

## 참고문헌

- Alarcos Llorach, E.(1950), *Fonología Española*. Madrid: Gredos.
- Alvar Ezquerro, M.(1995), *La formación de palabras en español*, Madrid: Arco Libros.
- Channesian Saboundjian, Maria(2004), “La asignación del acento en castellano”, Tesis Doctoral, Universidad Autónoma de Barcelona.
- Bosque, I. and M. Pérez Fernández,(1987), *Diccionario invers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 Brame, M.(1974), “The cycle in phonology: stress in Palestian, Maltese and Spanish”, *Linguistic Inquiry* 5, pp. 39-60.
- Canellana, M. J. and M. J. Kuhlmann(1987), *Pronunciación del español*, Madrid: Editorial Castalia.
- Carreira, M.(1990), “The Diphthongs of Spanish: stress, syllabification and alternations”,

-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Illinois.
- Chomsky, N and M.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ntrono, F. et al.(1995), *Fonética y fonología actual del español*, Madrid: Ediciones Cátedra.
- Enriquez, E. V. et al.(1989), “La percepción del acento en español”, *Lingüística Española Actual* 11, pp. 241-269.
- Halle, M. and J-R Vergnaud(1987a), *An Essay on Stress*, Cambridge: MIT Press.
- \_\_\_\_\_(1987b), “Stress and cycle”, *Linguistic Inquire* 18, pp. 45-84.
- Harris, J W.(1969), *Spanish Phonology*, Cambridge: MIT Press.
- \_\_\_\_\_(1983), *Syllable Structure and Stress in Spanish: an nonlinear analysis*, Cambridge: MIT Press.
- \_\_\_\_\_(1987), “The accentual patterns of verb paradigms in Span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5, pp. 61-69.
- \_\_\_\_\_(1991), “With respect to metrical constituents in Spanish”, *Current Studies in Spanish Linguistics*, Washington: Georgetown Univ. Press, pp. 447-473.
- Hayes, B.(1980), *A Metrical Analysis in Stress Rules*, IULC: MIT Press
- \_\_\_\_\_(1985), “Iambic vs. trochaic rhythm in stress rule”, *Proceedings of the XI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 429-446.
- \_\_\_\_\_(1989), “The prosodic hierarchy in meter”, Paul Kiparsky and Gilbert Youmans (eds.), *Rhythm and meter*, Orlando, FL: Academic Press, pp. 102-260.
- \_\_\_\_\_(1995), *Metrical Stress Theory: Principles and Case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alde, I.(1990), “On Spanish syllabification”, H. Campos and F. Martinez-Gil(eds.), *Current Issues in Spanish Linguistic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iparsky, P.(1982), “From cyclic phonology to lexical phonology”,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I*, pp. 131-175.
- Lee, S. Y.(1994), “Aspectos del acento en español”, Tesis Doctoral,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Madrid.
- Liberman, M. Y.(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e* 8, pp. 249-336.
- McCarthy, J. and B. Hayes(2003), *Metrical Phonolog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onroy Casas, R.(1980), *Aspectos fonéticos de las vocales españolas*, Madrid: Sociedad

- General Española de Librería.
- Navarro Tomas, T.(1972), *Manual de Pronunciacion Española*, Madrid: CSIC.
- Nespor, Marina, and I. Vogel(1986), *Prosodic phonology*. Dordrecht: Foris.
- Quilis, Antonio(1985), *El comentario fonológico y fonético de textos*. Madrid: Arco Libros.
- Real Academia Española(2014),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23.<sup>a</sup> ed.
- \_\_\_\_\_(2012),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Roca, I.(1986), “Secondary stress and metrical rhythm”, *Phonology Yearbook 3*, pp. 41-70.
- \_\_\_\_\_(1988), “Theoretical implications of Spanish word stress”, *Linguistic Inquiry 19*, pp. 393-423.
- \_\_\_\_\_(1990a), “Diachrony and synchrony in word stress”, *Linguistics 26*, pp. 133-164.
- \_\_\_\_\_(1990b), “Morphology and verbal stress in Spanish”, *Probus 2*, pp. 321-350.
- \_\_\_\_\_(1999), “Stress in the Romance Languages”, H. van der Hulst(ed.), *Word Prosodic Systems in the Languages of Europe*, Berlin, New York: Mouton de Gruyter, pp. 659-811.
- Selkirk, E.(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IT.
- \_\_\_\_\_(1986), “On derived domains in sentence phonology”, *Phonology Year Book 3*, pp. 71–105.
- Veronica Iglan, Andrea(2008), “La sufijación apreciativa en el español de Costa Rica”, Tesis Doctoral, Universitas Bergensis, Bergen.
- Wong-Opasi, U.(1987), “Lexical Phonology and the Spanish Lexicon”,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Illinois.

## 이수열

한국외국어대학교  
luzlee@naver.com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17일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11일

# Spanish Suffixes and the Prosodic Restrictions of their Derivation

**Soo-Yeol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ee, Soo-Yeol(2016), "Spanish Suffixes and the Prosodic Restrictions of their Derivatio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2), 89-109.

**Abstract** Add a suffix behind the stem is one way of word formation process in Spanish and in this process, the restrictions phenomenon can appear in various forms. One of them is a prosodic constraints. In this paper I analyze these prosodic constraints that can occur when these derived words are formed. The Spanish suffixes can divided in three forms according to their prosodic structure. Non-stress suffixes cannot affect the stress system of the root form, maintaining the accent of the stem intact. Their prosodic structure is formed by one light syllable and cannot attract the stress. The stress suffixes are formed by two light syllables or one heavy syllable, and the stress can be assigned to the suffix. And the preaccented suffixes move the accent to the syllable immediately preceding the suffix and these suffixes may have a condition that can have a stress. But in the during of the derivative formation a prosodic constraints phenomena occurs and the stress moves to the previous syllable. When various types of suffix are to create a single derived word occur symptoms associated with a combination of these suffixes.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constraints on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suffix. The derived word is formed in order of preaccented suffix and stress suffix, and the adverbial form –mente is added at the end.

**Key words** Spanish suffix, the prosodic structure of the Spanish suffix, Spanish stress system, the prosodic constraints of Spanish suffix